

“정부 예산안서 빠진 사업, 국회서 추가 확보”

전북자치도, 내년 국가예산 확보 동향 등 현안 설명 농진청 부서 이전·전주 가정법원 설치 등 안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25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국가 예산 확보 동향과 함께 농촌진흥청 부서 이전, 국회 대응 전략, 지역 주요 법안 추진 상황 등 굵직한 현안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 브리핑은 이현서 정책기획관이 직접 진행했다.

이 정책기획관은 먼저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해 “정부 예산안이 이번 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라며 “도와 관련된 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는 이번 주 중으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안에서 빠진 사업들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드시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를 위해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국회 대응 과제를 정리하고 각 의원실과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부서의 전주 이전 문제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 정책기획관은 “정부의 식품 분야 강화 정책에 맞춰 관련 부서는 당연히 완주에 위치해야 한다”며 “현재 일부 직원이 이미 전주로 이전했으나, 추가로 이전해야 할 인력과 조직이 남아 있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2차 이전 정책 방향에 맞춰 제도적 장치 마련도 검토하고 있으며, 법 개정 논의와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에서는 국정과제 후속 조치와 새만금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 사업, 전주 가정법원 설치, 공공의대법 제정 등 지역 핵심 현안이 집중 논의된다.

특히 전주 가정법원 설치와 관련해 “가사 사건 처리 건수가 전국적으로도



이현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이 25일 도청 기자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많은 편이어서 전북의 위상과 도민 편익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연내 법안 통과와 절실함을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도 다양한 현안이 소개됐다. 무주 태권도원에서는 28일부터 4일간 35개국 500여 명이 참여하는 ‘세계 태

권도 그랑프리 챌린지’ 대회가 개최된다.

특히 아프리카 등 스포츠 저개발 국가 선수단이 참여해 국제적 교류의 장이 될 전망이다. 도는 전주 한옥마을 체험 프로그램 등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해 지역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계

획이다.

교통·건설 분야에서는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전북도는 교통망 확충과 관련 국가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 총 10조6,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기획관은 “올해 수립되는 계획에 반영돼야만 후속 조치와 국가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도뿐 아니라 지역 출신 장관들과 협력해 균형 있는 반영을 이끌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 개정 이후 후속 조치와 관련해 “8월 11일 입법예고를 통해 전주·김제·원주·익산에 이어 군산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며 “광역교통 시행계획이 2026년 초 고시될 예정인 만큼, 8월 말~9월 초 진행될 수요조사 단계에서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기획관은 “전북자치도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브리핑을 열고 도민에게 정책 정보를 소상히 공개하고 있다”며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투명한 행정, 열린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남원시의회, 폭력 예방 교육

남원시의회가 지난 22일, 시의원과의회사무국 고위직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조직문화를 이끄는 리더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전문 강사를 초청해 ‘콘텐츠를 활용한 성인지 관점’으로 본 폭력 예방교육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 참석자들은 성인지 관점으로 접근한 후, 안전하고 평등한 관계를 위한 조직문화, 타인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가 등의 심화학습을 통해 폭력예방과 건전한 의회 문화 확립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했다.

김영태 의장은 “폭력없는 건전한 조직문화는 시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오늘의 배움이 존중과 배려가 살아있는 의정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우 기자

장수군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주민 의견수렴 토론회 개최

장수군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남수)는 지난 21일 장수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장수군 송전선로 반대 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남수·최영호·장영환·이현춘)와 함께 초고압 송전선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압 송전선로, 올바른 방향과 해법 찾기’를 주제로,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광양-장수, 입실-장수-계룡, 장수-무주영동 3개 초고압 송전선로 노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1부 전문가 특강에 이어 2부에서는 심층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1부 특강에 나선 에너지정의행동 이현석 정책위원은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의 배경인 용인 반도체 산단과 에너지 고속도로, 양수발전소 설치 정책의 문제점과 지역 주민의 피해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배터리 저장장치(BESS), V2G(Vehicle to Grid), 열배터리 등의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2부 토론회에서는 장수군의회 김광훈 의원, 에너지정의행동 이현석 정책위원, 송전탑 반대 진안군 대책위원회 이현석 집행위원이 패널로, 장수군 송전선로 반대대책위원회 김재호 공동 집행위원장이 사회자로 참석하여 수도권권을 위해 지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불균형 문제를 비판하고, 주민들과 함께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장수군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특별위원회는 김남수·장정복·유경자·김광훈·한국희·이종섭 의원 6인으로 출범했다. /이만호 기자

“완주·전주 통합 6자 간담회 열어야”

민주 안호영 의원, 행안부에 공식 요청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6자 간담회를 조속히 열 것을 공식 요청했다.



그는 “행정통합은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최종 결정권자인 행안부 장관이 양측 의견을 직접 듣고 신속히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이 불필요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전북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 논의는 갈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전북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함께 지혜를 모아 행안부가 하루빨리 간담회를 열고 전북의 실질적 발전 비전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국회 법사위, 내달 5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여당이 발의한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법’ 관련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의 건’을 의결했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오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실시하는 가운데 증인 8명, 참고인 12명을 청문회에 부르기로 했다.

/뉴시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 백년포럼, 정책 학습·소통 선도 모델 ‘인정’

도, 한국정책 대상 ‘정책상’ 수상

전북특별자치도는 25일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4회 한국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 정책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정책대상은 한국정책학회와 한국정책대상 조직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책의 공공성, 혁신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매년 우수 정책을 선정·시상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백년을 그리는 ‘백년포럼’이 전국적으로 우수한 정책 모델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백년포럼’은 2024년 5월부터 시작된 도정 주도형 정책학습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총 36회의 강연이 이어졌다. 공무원은 물론 유관기관, 출연기관, 기업, 일반 도민까지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학습·소통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책에 대한 인식 확산과 실무 접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포럼에는 분야별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다양한 정책 주제를 깊이 있게 다뤘다.

AI·과학기술 분야는 임문영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상임이사과 오상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이, 기후위기 분야는 하지원 에코나우 대표가, 농생명산업 분야는 김명자 KAIST 이사장(전 환경부 장관)이 강연을 맡았다.

고령사회 대응은 김준기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원장이, 인문학 분야는 박재희 민족문화추진연구소 원장이, 정책·거버넌스 분야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강사로 참여했으며, 스포츠외교 분야는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 원장이 맡아

폭넓은 시야를 제공했다.

또한, 이현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기본사회’를 주제로 강연하며 국가 정책 담론과 연계된 시각을 공유해 포럼의 의제 폭을 한층 넓혔다.

특히 포럼은 매회 이른 아침 시간에 진행되며, 정책을 공부하고 토론하는 문화를 정착시킨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강연은 단순 지식 전달을 넘어 부서 검토와 정책화 과정으로 연계돼 실제 행정 현장에 반영되었으며, 정책 역량 강화와 실무 적용, 성과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천영명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백년포럼은 도정의 상징적 정책 프로그램으로, 지자체에서 강사 섭외까지 직접 챙기고 매 회차 빠짐없이 참석하실 만큼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왔다”며 “이러한 도정 차원의 노력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아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졌다. 앞으로도 백년포럼을 통해 전북이 정책 학습과 소통의 선도적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눈 가리고 운전하기

고속도로 사망자 4명 중 3명은 졸음 및 주시태만으로 발생

- 주기적 환기
- 휴게소, 졸음쉼터 이용
- 가벼운 스트레칭

한국도로공사